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나들목 확장공사 정부 재정분담률 상향해야”

광주상의 기재부·국회 등에 건의문
방재시설 의무화로 공사비 늘어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가 정부에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나들목 구간 확장 공사의 정부·한국도로공사 재정 분담률 상향을 공식 건의했다. 정부의 환경·안전 정책 강화로 공사비가 급증하면서 지방비 부담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광주상의는 9일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지역 국회의원 등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나들목 구간은 1986년 4차로로 확장된 이후 현재 하루 평균 14만대의 차량이 통행 중이다. 이는 적정 통행량(5만 1300대)의 2.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상습적인 교통 정체와 사고 위험이 이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악성 병목 구간으로 꼽힌다.

광주상의는 이 구간이 광주 도심과 주요 산업 단지를 연결하는 핵심 물류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 재정 부담 구조가 중앙정부 20%, 한국도로공사 30%, 광주시 50%로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최초 협의 당시에는 정부 80%, 광주시 20% 분담안이 논의됐으나 이후 기획재정부의 재협의 요청에 따라 현 구조로 변경되면서 지방비 부담이 급격히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총사업비 역시 2015년 2762억원에서 2023년 실시 설계 결과 7934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광주상의는 이 같은 증액이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2021년 환경영향평가에서 소음 저감 대책이 강화됐고, 2022년 제2경인 민자도로 방음터널 화재 이후 방재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방음터널과 방재 설비 등 추가 공사비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광주상의는 사업비 급증의 원인이 정부 정책 변

화에 있는 만큼 지방 재정 분담률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사업비 7934억원 중 정책 강화로 인해 늘어난 3400억원의 중앙정부와 도로공사 부담하고, 나머지 4530억원에 대해서만 광주시가 50%(2267억원)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조정하자는 제안이다.

또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광주시,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재정 부담 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시했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나들목 확장 사업은 단순한 지역 교통 개선이 아니라 국가 물류체계 효율화와 국민 교통안전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군공항 이전, 인공지능 실증밸리 조성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정부가 재정 부담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KJB금융박물관 공익 문화공간 자리매김

다양한 전시·교육 프로그램 호응

광주은행은 “KJB금융박물관 <사진>이 지역민과 학생 등에게 금융 교육 및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익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9일 밝혔다.

KJB금융박물관은 지난 2012년 광주시 동구 광주은행 본점 2층에 문을 연 호남지역 최초의 금융 전문 박물관으로, 광주은행의 역사와 광주·전남 금융의 발자취를 정리해 보존하고 있다.

박물관은 ‘역사존’과 ‘화폐존’으로 구성돼 지역 금융의 발전 과정과 한국 화폐의 변천사, 세계 각국의 화폐를 살펴볼 수 있다. 또 지역민의 힘으로 설립된 광주은행의 창립 배경과 성장과

정도 전시돼 있다.

전시 외에도 마켓 체험, 화폐 만들기 체험, 은행원 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재미있게 금융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박물관 내 마련된 금융교육실에서는 교육 대상의 높이에 맞춘 금융교육을 진행한다.

신종식 광주은행 브랜드전략부장은 “광주은행 KJB금융박물관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보관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민들과 함께 금융의 가치를 배우고 나누는 곳”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현대차·기아, ‘2025 레드 닷 어워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14관왕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 입증

현대차와 기아가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2025 레드 닷 어워드: 브랜드 &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에서 총 14관왕을 차지하며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했다.

현대차는 단편 영화 ‘밤낚시’로 필름&애니메이션 부문 최우수상과 광고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배우 손석구와 광고 대행사 이노션이 참여한 이 작품은 전기차 충전소를 배경으로 자동차 카메라 시점에서 전개되는 독창적 연출로 호평을 받았으며 칸 라이언즈 등 세계 주요 광고제에서도 수상했다.

또한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의 로보틱스 기반 체험형 스마트팜 ‘CX 스마트팜’과 한식당 ‘나오(Na Oh)’가 인테리어 아키텍처 부문 본상을 받았다. 두 공간은 첨단 기술과 한국 전통 문화를 결합해 지속가능성과 문화적 가치를 구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인공지능 기반 광고 제작 플랫폼 ‘현대 애드크리에이터’ ▲글로벌 생산 1억대 기념 캠페인 ‘한 걸음 더(One step further)’ ▲미디아트 ‘하이드로젠 웨이브’ ▲생성형 AI 프로젝트 ‘모빌렛(Mobilet)’ 등이 본상을 수상했다. 기아는 인터페이스·공간 커뮤니케이션·전시 등 5개 부문에서 본상을 받았다. 특히 인공지능 어시스턴트



현대차와 기아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글로벌 시상식에서 14개의 상을 수상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했다. 필름&애니메이션 부문 최우수상과 광고 부문 본상을 수상한 현대차 단편 영화 ‘밤낚시’.

<현대자동차 제공>

트 디자인과 전시 ‘오퍼짓 유나이티드(Opposite United)’, ‘PV5 Story’ 등이 기아의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창의적인 사용자 경험을 인정받았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두 브랜드

가 자동차 제조를 넘어 혁신적 디자인과 커뮤니케이션으로 미래 모빌리티 철학을 전 세계에 효과적으로 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KDI 경기 다소 개선 진단…“건설부진은 지속”

“서비스업생산·소매판매 완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는 낙관적 진단을 내놨다.

KDI는 지난 5월 ‘경기 둔화’를 언급한 이래 6개월 만에 ‘경기 개선’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다만 건설업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KDI는 9일 발표한 ‘2025년 11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 위축과 수출 증가

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는 6월과 7월 각각 경기가 ‘미약한 상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는데, 8월에는 ‘소비 여건은 부분적으로 개선’, 9월에는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여전히 경기가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8월부터 이어지는 경기 부진 완화의 정도가 조금 더 진척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KDI는 서비스업 생산 증가를 중심으로 9월 전산업 생산(-0.4%→+6.7%)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소비와 연관성이 높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이 포함된 서비스업 생산 경우, 추석 명절이 작년 9월에서 올해 10월로 이동하면서 조업일수가 증가한 데 따른 영향을 고려해도 상승 폭(1.0%→+6.2%)이 컸다고 봤다.

시장금리 하락세, 정부 지원 정책 등으로 소비는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재화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월별로는 일부 등락이 있었지만,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전기 대비 1.5% 증가하며 부진이 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해나 기자 khn@



광주신세계 빼빼로 데이·수능 선물 구입 행렬

로 선물세트를 판매한다. 같은 기간 유튜브 ‘여수언니’가 만든 디저트 브랜드 ‘봄날엔’도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 상품들 ‘초코풍당 요거꿀떡’과 ‘초코풍당 피스타치오떡’이 있다. 이 밖에 ‘스폰홀릭’과 ‘연백모찌’ 매장에서도 선물로 적합한 초콜릿과 모찌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에서 빼빼로 데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고객들이 선물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우선 ‘라라 베이커리’는 오는 13일까지 팝업스토어를 열고 빼빼로 선물세트를 판매한다. 같은 기간 유튜브 ‘여수언니’가 만든 디저트 브랜드 ‘봄날엔’도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 상품들 ‘초코풍당 요거꿀떡’과 ‘초코풍당 피스타치오떡’이 있다. 이 밖에 ‘스폰홀릭’과 ‘연백모찌’ 매장에서도 선물로 적합한 초콜릿과 모찌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코스피 떠나는 외국인...이번주 순매도 7.2조

역대 최대...“당분간 이어질 것”

최근 코스피가 미국발 ‘인공지능(AI) 거품론’ 등으로 휘청이면서 이달 첫째주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 주간 순매도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3~7일)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 순매도액은 7조26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간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액 기준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직전 역대 1위 기록은 지난 2021년 8월 둘째주(9~13일) 기록한 7조454억원이었다.

2021년 8월 당시 외국인은 원/달러 환율 급등과 D램 가격 하락 우려가 촉발한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에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대거 ‘팔자’에 나선 바 있다.

일별로 보면 외국인은 지난 3일 이후 7일까지 5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나타냈다. 3일 7950억원 수준이던 순매도액은 4일과 5일에는 각각 2조원대로 급증했으며, 6일과 7일에는 각각 1조7000억원, 4550억원 순매도했다.

특히 지난 4일 순매도액(2조2280억원)은 일별 기준 2021년 8월 13일(2조6990억원) 이후 4년 3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그간 코스피 오픈폭이 컸던 데 따른 고점 부담이 누적된 데다, ‘인공지능(AI) 거품론’에 따른 미국 기술주 급락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점이 외국인의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의 순매도세는 대형 반도체주에 대거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SK하이닉스로 3조7150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삼성전자도 1조5030억원어치 순매도하며 두 번째로 많이 팔았다.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 전체 순매도액의 72%가 이들 두 종목에 쏠렸다.

반면 LG씨엔에스는 1940억원을 순매수했으며 이어 SK스퀘어(1790억원), LG이노텍(690억원), 이수페타시스(490억원), 하이브(480억원) 등 순으로 많이 순매수했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증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지난달 국내 증시 빚투 25조 5000억원 수준

“자본재·반도체에 쏠려”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의 ‘빚투(빚내서 투자)’잔고가 사상 최대 수준에 근접한 25조5000억원까지 늘어났으며, 개인 투자자는 반도체·자본재 등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을 신용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최근 유가증권시장 신용융자 증가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주가 하락시 반대매매에 따른 하락폭이 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국내 주식시장의 신용융자잔고는 25조5000억원으로 과거 최대치(2021년 9월 13일·25조7000억원)에 근접했다.

특히 코스피가 4000대까지 상승하면서 유가증권시장 신용융자잔고는 15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빚투 증가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개인투자자의 일반 현금매수와 신용매수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4월부터 10월 말까지 개인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현금매수로는 대규모 순매도를 지속했는데, 신용매수는 오히려 늘었다.

2021년 개인 투자자들이 현금매수와 신용매수를 동시에 확대하며 주가 상승을 주도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업종별로 보더라도, 개인투자자들은 10월 말까지 반도체·자본재 등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일반 거래에서 순매도했다.

그러나 신용투자는 이들 종목에 집중되는 등 외

국인 순매수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10월 말 결제일 기준 유가증권 신용융자잔고 중 자본재 비중은 27.7%(3조9000억원), 반도체는 15.8%(2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 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는 시장 조정을 기대하며 그간 상승했던 종목을 순매도하거나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그룹과, 반도체·자본재 상승에 레버리지(차입) 투자하는 그룹으로 양분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신용융자가 자본재·반도체에 집중돼있어 주가 하락시 반대매매에 따른 해당 업종 가격 하락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며 “두 업종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로또복권 (제 1197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	5	7	26	28	43	30
등위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205,089,827				13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64,563,441				74
3	5개 숫자일치	1,547,683				3,087
4	4개 숫자일치	50,000				162,871
5	3개 숫자일치	5,000				2,751,422